

전남도, 7월부터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국 최초…대학 등 창업시설 입주
최대 2년 사업화비 2400만원 지원
기업 맞춤형 멘토링·컨설팅 등 추진
“전남 창업생태계 활성화 중심 육성”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오는 7월부터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미래 첨단 분야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기업의 조속한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선발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2400만원의 창업 기술 사업화비가 지원되며, 기업 맞춤형 1대1 멘토링과 함께 경영, 회계, 법률, 투자유치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코칭 프로그램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16개 대학과 출연기관의 창업·보육 공간을 거점으로 시제품 제작,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인증,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기술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촉진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 국립목포해양대, 동신대, 한국에너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오는 7월부터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전남도 제공

지공과대, 초당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전남도립대 등 8개 대학과 함께 전남농업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력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여수산학융합원 등 8개 출연기관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참여 기업 신청을 19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 가운데, 18세부터 45세 이하(1980년~2007년 출생자)의 청년이다. 선정된 기업은 16개 대학·출연기관 창업보육센터 내 창업시설에 입주하고, 사업자(법인) 주소를 해당 시설로 신설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전남도 거주자, 전입 예정자, 타 시도 거주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 거

주자, 전입 예정자, 도내 대학 재학생(석·박사 포함)은 선발 평가에서 우대받는 다.

선발 규모는 총 150명(기업)으로 창업 분야는 △우주항공·바이오·인공지능(AI)·데이터·에너지 등 지역 특화 기술 분야 100명 △농수산기술 분야 30명 △문화·관광 분야 20명 등 미래 첨단 기술창업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신청은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https://jinchangup.ezwel.com/>)에 회원가입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희망하는 보육기관에 신청서 원본을 방문 제출해야 접수가 인정된다. 온라인 신청만으로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총 11종이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남도 벤처창업종합안내창구(1533-3330) 또는 16개 보육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자유치국장은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벤처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전남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특화 분야의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7월 선발된 150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해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조기 성과 달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내달 13일 ‘DMZ 방문’ 광주평화열차 운행

오월 음악다방·연극 공연 운영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6월13일 시민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광주평화열차’를 운행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화열차는 1980년 5월 광주정신을 되새기고,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광주시는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과 10·4남북정상선언 18주년을 기념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평화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그 첫 운행은 오는 6월13일로, 광주 효천역에서 임진강역까지 특별열차로 이동한다.

열차에서는 △1980년 5월을 주제로 한 음악다방 △추억의 간식 쿼츠 △연극 공연 등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가 진행된다. 임진강역 도착 후에는 파주시 DMZ



일원에서 안보현장 견학이 이어져 분단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이 열차에는 총 370여명의 시민이 탑승할 예정이며,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11만원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평화열차는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직접 체험하고 확대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광주시가 평화와 통일의 가치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 5개 자치구,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주민소통·책임행정 인정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평가 남구 7년·동구 6년 연속 SA등급 광산구·서구·북구도 나란히 호평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5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18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6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약이행완료(100점) △2024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Pass/Fail) △일치도 분야(Pass/Fail)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실적을 공개했다.

해당 평가는 지난2월 부터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민선 8기 공약 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 ‘주민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등급은 SA, A, B, C, D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남구는 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7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남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면서 주민 배심원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소통을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동구는 6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동구는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등 6대 분야, 48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과의 주기적 이행 점검을 통해 신뢰 기반 행정을 구축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서구의 경우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무작위 주민배심원단 운영, 누리집 매인화면에 공약 이행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민주적 이행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구도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북구는 130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 위기 대응 항구적 자연 재난 안전 도시 조성 공약’, ‘생활 SOC 확충 공약’ 등을 내실 있는 기반을 구축한 점과 주민 참여를 폭넓게 수용한 점이 반영됐다.

광산구도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했다. 광산구는 민선 8기 1호 정책인 ‘찾아가는 경정 구청장실’ 운영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구정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도심 국가습지 황룡강생태길 조성, 커뮤니티 웰스케이 등 공약들도 순항 중인 점이 반영됐다.

윤준명 기자

광주시,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서 5·18정신 공유

‘퀴즈·댓글 특별이벤트 ‘호응’ 오월광주 역사적 의미 되새겨

광주광역시시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ON)’에서 특별이벤트를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13~15일까지 광주온에서 ‘45년 전, 광주의 봄을 함께 기억해요’를 주제로 퀴즈 풀기 및 댓글 참여 이벤트를 진행, 총 5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5·18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후손에게 전해야 할 역사’ 등의 메시지부터 ‘초등학교 때 본 무섭고 슬픈 기억’과 같은 개인적 경험까지 다양한 소회를 공유했다.

또 ‘기념행사에 첫 손주와 함께 참석하

겠다’, ‘오월텐트촌이 생겨 너무 기대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퀴즈 정답자와 댓글 작성자 중 각각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퀴즈 참여자 전원에게는 광주온 마일리지를 지급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플랫폼 활용을 유도했다.

손병희 시민소통과장은 “광주의 아픈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민주정신인 5·18민주화운동을 시민들이 함께 기리고 나누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온(ON)’은 시민 누구나 정책 제안, 설문 참여, 토론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으로, 시정에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

광주시, 자립기반 취약청년 사회진입 지원

9월까지 멘토 5명·멘티 20명 매칭 자기설계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시는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해시태그 멘토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기반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정서적 고립, 정보 부족, 진로 혼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앞서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 20명을 선발, 지난 7월 광주청년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광역시시의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해시태그 멘토링 사업’.

광주광역시 제공

선발된 청년 20명과 청년 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을 4:1 비율로 매칭해 오는 9월까지 약 5개월간 총 20회 멘토링을 진행한다.

멘티는 진로 설정, 학업·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을 포함한 자립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게 된다. 멘토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코칭, 진로 탐색 등 실질적인 조언과 외부 자원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참여 청년들에게 프로젝트 실행비로 1인당 최대 80만원과 참여수당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금융·재정 관리, 심리·정서 회복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공통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청년 개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이끄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